



Market Index <31일>		2판
코스피지수	2497.09	↓ -1.72
코스닥지수	799.24	↓ -19.62
KEDI 30	2374.63	↓ -23.24
국고채금리 (3년물, 연%)	3.261	↓ -0.007
환율 (원/달러)	1334.60	↑ +5.20
원액(100만당)	902.95	
원유료	1443.77	

**NH투자증권** 투자, 문화가 되다

# 한국경제



2024년  
2월 1일 목요일  
hankyung.com

제18915호 | 대표전화 02) 360-4114

## 중소 첫 사망사고 ... 국회로 몰려간 기업인 '격앙'

<50인 미만>

부산 '근로자 10명' 사업장서  
중대재해 발생 ... 형사처벌 촉각

전국 각지서 모인 3500여명  
"83만 영세중소 사지 내몰려"



"중대재해법 유예해 달라" 간절한 호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맨 앞)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행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35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집결했다. 최혁기자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1월 27일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날이다.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데 정치적 특실 계산에만 빠져 기업인을 사지로 내모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김동경 경기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3500여 명(중기중앙회 집계)이 집결했다. ▶관련기사 A3면

김동경 이사장 등 지역 업종 대표가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울분에 찬 발언을 쏟아내며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제주 기업인들이 새벽부터 올라왔을 정도로 절박한 사정을 정치권이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중대재해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중대재해법 유예요청 호소문'을 전달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1일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시행유예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장하며 발을 빼고 있다. 이정은 중기선임기자/이미경/이슬기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이날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50인 미만 영세 폐알 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첫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확대 적용한 지 닷새 만이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이미경/이슬기 기자

## '국내투자형 ISA' 도입 1000만원까지 비과세

올해 새로 도입하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당초 정부 계획의 두 배 수준인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가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가입액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ISA에 적용하는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초 발표 당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과감한 세제 개혁"을 주문하면서 혜택이 늘어났다.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 투자형 ISA 가입을 허용한다. >>A2면에 계속 이광식기자

## 제15회 한국IB대상 한투증권 종합대상

지난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올린 투자은행(IB)에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됐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후원한 '제15회 한국 IB대상'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주식발행(ECM), 채권발행(DCM), 기업공개(IPO)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종합대상(금융위원장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A18면

ECM 부문은 SK이노베이션과 루닛 등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NH투자증권이, DCM 부문은 전체 채권 대표 주관 1위인 KB증권이 수상자로 뽑혔다. IPO 부문은 미래에셋증권이 차지했다. 인수합병(M&A) 부문에서는 삼일회계법인(재무자문), 김앤장법률사무소(법률자문), 삼성KPMG(회계자문)가 상을 받는다. >>B1~8면 >>C1~8면

## 삼성 "골칫덩이 낸드도 상반기 정상화"

1분기에 메모리 흑자 전망

삼성전자가 지난해 분기마다 조(兆) 단위의 적자를 낸 '골칫덩이' 낸드플래시가 연내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PC, 스마트폰에 이어 업황 회복세가 더딘 서버용 시장에서도 수요 회복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 업황 회복이 가시화하면서 올해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에서 10조원 넘는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A5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확장 실적을 31일 공개했다. 매출(67조7799억원)과 영업이익(2조8247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34.4% 줄었다. 반도체 사업에선 2조1800억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수치는 좋지 않았지만, 이날 실적설명회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D램은 물론 낸드플래시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고부가가치 낸드 제품인 서버용 데이터저장장치(SSD) 제품 중심으로 주문이 쌓이고 있다"며 "상반기 중 재고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D램은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용 D램 주문이 폭발한 덕분이다. 김 부사장은 "올 1분기 전체 메모리 사업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상반기까지 감소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정수/박의명 기자

## 가양·행신·수지 ... '노후정비' 108곳으로 확대

<강서구> <고양> <용인>

정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기 신도시 등 51곳서 두 배로  
전국 215만여 가구 수혜 예상

서울 강서구 가양, 경기 수원시 정자, 하남시 신장 등 전국 108개 택지지역의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특별법 발의 당시 공개한 51개 지구(103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보다 150% 더 높이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도 면제한다. ▶관련기사 A23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특별법 제정 당시 대상으로 거론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이 시행한 노후 주택사업지, 산업단지·공공기관 이전 배후지 등이 포함됐다.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 미만이어도 인접 택지와 합쳐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에서는 기존 개포, 목동, 상계 등과 함께 면적이 97만㎡인 가양지구가 추가됐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 수원 매탄, 의정부 송산, 고양 행신 등이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경기 안산 반월, 충북 오창과학, 전남 영암 대불, 경남 창원 등 산업단지 배후 택지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준공 30년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용적률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한과 상관없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허용한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최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시구 선정을 위한 기준을 오는 5월 공개할 예정이다. 6월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도시가능향상 등을 종합해 11월까지 선도시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자체 등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서기열 기자

첨단과 혁신의 성남 희망도시

# 판교를 AI 반도체 R&D 거점으로 육성

2024 새해 정부 선포

## 성남시는 환영합니다!